

# 12월의 기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 아멘 -

## DCEM 성회안내

지난 11월 20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동경)성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12월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DCEM을 잊지 않고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시은, 이태원내과의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통해 고난이 유익했다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시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게 해주었다’

물살이 센 시내에 우리가 옷을 걷어 올리고 걸어 들어가면 물살에 흔들려서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면 물살 속에서도 짐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고 건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시험이 다가오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발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면 응답이 옵니다. 오래 참을수록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우리 기도생활에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Nov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태국 복음주의 연맹(EFT) 50주년 치앙마이 대성회

## 조용기 목사, 4차원의 영성과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 부흥 강조



불교의 나라 태국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4차원의 영성과 성령 충만을 통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전해졌다. 전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신자인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약 4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가 되지 않는다.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위임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 태국을 찾아 4차원의 영성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태국 복음주의 연맹(EFT: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50주년을 기념해 11월 4~5일 치앙마이 메조대학교에서 열린 성회는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등 태국 전역과 인근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회는 잠들어 있는 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성을 깨워 태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수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했다. 태국 복음주의 연맹은 1969년 9월 9일 결성돼 현재 110개 교단,

1200여 교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다.

11월 5일 저녁 치앙마이 미션스쿨 학생들이 한국 전통 부채춤을 선보이며 시작된 성회는 태국 소수민족인 카렌족의 전통 춤을 비롯해 50주년을 기념하는 워십 댄스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태국 복음주의 연맹 북부지역회장 부야갑 목사(대회장)의 소개로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시편 8편 3~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The Power of Given God)라는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죄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

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이 태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태국 복음화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길 당부했다.

이번 50주년 성회를 주최한 태국복음주의 연맹 총회장 마눗 목사는 “복음화율이 1%도 안되는 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대성회를 개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번 성회를 통해 2배 부흥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 되어 태국복음화를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성회는 김종복(장로회 부회장), 이주익(안전위원장), 엄주원(선교위원장), 문승현 장로와 선교위원, 최성규(순복음 인천교회)목사,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목사와 순복음 아세안총회 선교사들이 함께 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면 병 낫고 건강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놓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 아브라함의 현재적 신앙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이롭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5세까지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바라봄으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대답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천막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별들을 헤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마다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처럼 많은 후손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드디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두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야로 마음속에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잘못 바라보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고 잘 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1~3)

라보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방법을 바꿔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한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였으나 얻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20년 동안 조카를 맨손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여러 번 월급을 변경하고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양이나 염소 중 얼룩덜룩이나 점박이를 낳으면 그것을 월급으로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0-12절에 보면 "그 양 떼가 새끼 뱀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향나무의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그 가지들 짐승 떼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구유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짐승 떼들이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배는데 그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곳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짐승 떼들이 새끼를 뱀 때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새끼는 얼룩덜룩이로 잉태된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 마음속에 얼룩덜룩이의 양과 염소 떼가 창대하게 태어나는 것을 꿈을 품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3.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강단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을까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를 흘린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상

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일생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염려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내가 앓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삶의 가치와 영경귀를 제하시고 모든 가난을 제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천국과 영생을 가져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꾸고 계획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을 마음속에 꿈꾸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광명한 소망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의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을 입술의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가슴속에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자신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바라봄의 법칙을 잘 알고 사용하여 마음속에 꿈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 복음주의 연맹 50주년 성회

성령 충만·말씀·기도·선교·구제 등 복음의 핵심 전해



불교 국가 태국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4차원 영성'의 믿음이 전해졌다. 4차원 영성이란 '생각 꿈 믿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의 신학 리더십이다. 11월 5일 치앙마이 메조대학교에서 열린 태국복음주의연맹(EFT) 50주년 기념 성회에서 주강사로 선 총재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셨다"며 "사람이 가진 권세와 힘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의 삶을 변화시키고 태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말과 생각, 믿음 꿈을 통해 태국 복음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태국 복음주의 연맹 50주년을 기념해 이영훈 목사를 주강사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령충만과 교회성장을 배우기 위한 세미나가 11월 4-5일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5일 '교회 성장의 원리'(행 2:42-47)를 주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61년의 역사 가운데 5명의 성도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비결을 태국 목회자들에게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60여 년 넘게 사역해 오시면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긍정적 믿음을 가지

고 구제와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태국의 모든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태국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과 태국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부아갑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 순복음 교회의 목사님들이 태국까지 와서 교회성장과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태국의 목회자들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태국복음화를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